

12월 25일은 5천 년 전부터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려 왔던 '메시아절' 이다

단지파 중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

메시아절의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5천 년 전부터 지켜오던 절 기입니다. 5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곧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절인 12월 25일 날을 지켜오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구세주라고 사람들을 속여 왔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보다 흠이 함께 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창세기 49:9)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유다 자손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때는 왕 노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칠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니이다(창세기 49:16)"

아굽이 열두 아들에게 장래 일을 예언할 때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써여 있습니다. 열두 아들 중에 다섯 번째 아들인 '단'에게 심판권을 준 것입니다.

바로 '단'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조상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단조롭고 너무 상스러우니까 거기에서 임금(君)자를 붙여드리자! 해서 「단군」이 된 것입니다. 단지파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구약성경 사사기에 써여 있습니다. 바로 단은 이스라엘 현재 나라에 '소라'라는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소라 땅 가운데에 '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살던 땅인 고로 그 지명을 지금까지도 '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가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서 우랄 알타이 산맥까지 가서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살 때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우리 단지파 민족은 물론이고 환도 안 되고 알타이 민족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알타이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사에서 말하기를 우리민족은 알타이어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민족은 원래 옛날부터 알타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알타이 말이 변용되어서 지금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원래 아굽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입니다. 아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써여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옮겨졌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굽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아굽에게 옮겨진 하나님의 신이 바로 '단'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인내천 사상(人乃天思想)'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 사람은 동물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굽의 아들 단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였었다는 것입니다.

한민족 가운데서 세계를 지배할 구세주가 출현한다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인 고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으뜸가는 천성민족입니다. 우리민족은 구세주가 나올 민족인 고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이 사람이 81년도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5대공약을 했습니다.



구세주 조희상님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에 남북한 전쟁 일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못 일으키고 땅 속으로 기어들어 갔죠? 그 아들 김정일이 남북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여러 번 간첩을 내려 보낸 적이 있죠? 강릉, 강화에서 간첩이 많이 잡혔죠? 간첩을 내려 보낸 것은 남한의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한의 방호

진지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군 군함 다섯 척을, 서해안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삼팔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 올 때에 아군 군함이 저지를 시키면서 그대로 이북 군함을 향해서 대포를 쏘니까, 그대로 대포를 쏠 때에 아군 군

함의 포는 기관총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기관총처럼 따~따~따~ 따~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북의 큰 군함이 바다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구세주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본 김정일이 '야! 남한은 6·25사변 때에 금세 무너지고 남한 군대들이 힘없이 다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어서 불들려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구나! 남한 군대는 과학적인 무기로,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전쟁을 해 봐야 인민군이 백만 군대라 하지만 백만 군대가 소용이 없구나! 그대로 기관총처럼 포가 날아오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당할 수가 있을까! 한참 고민에 빠진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입니까?" 하니까, "네! 네!" "우리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시다." 하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 공항에 도착을 했던 거죠? 평양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에, 김정일이 그 트랩 계단 밑에까지 쫓아가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고 열차 오고 그냥 비벼대는데 여러분들 다 봤죠?

그래서 김정일은, 짧은 사람이 이북의 정권을 쥐고 흐드니가 오만하기 그지없고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의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도 심지어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찾아가도 비행기장에 안 나왔습니다. 강택민이라면 중국 13억 인구의 최고 높은 주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비행기장에 안 나왔어요. 김정일이 자기의 자리에 탁 앉아서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에는 그 비행기장에 가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그 앞 계단까지 쫓아가서

땅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그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서 그냥 김대중을 껴안고 비벼대는데 '살려 주십시오' 하는 태도였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김정일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찾아가기 전에는 굉장히 근심걱정이 가득 차서 발발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요즘을 펴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갈 때는 만민이 하나님이 되고 세계민이 한국으로 은금보화를 신고 몰려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마귀를 죽이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갈 때에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도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전부가 선한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전 세계민들이 은금보화를 신고 서해안으로 하루저녁에 천척의 배가 몰려온다고 격양유룩에 써여 있습니다. 천척의 배가 은금보화를 신고 와서 전부 승리제단 가면 구세주가 있으니, 구세주한테 가서 이 은금보화를 드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그 은금보화를 가져오면 가져온 그 사람한테 이 은금보화를 받았다고 이 사람이 영수증을 써 줍니다. 영수증 종이 한 장만 두고 엄청난 금덩어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많이 쌓이는 고로 우리 밑실에 넓은 땅이 있죠? 거기에서 잔뜩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 식구들한테 전부 나누어줍니다.*

2002년 12월 25일 말씀 중에서



쌀 얻으러 갔다가 매만 맛고 돌아와

'나 같은 마귀 새끼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신의 쓰라린 처지를 고소하게 생각하다

신양촌에서 "조 중위는 마귀"라고 핏 박할 때이므로, 오만제단 주일학교 반사를 하던 여동생을 '조 중위 마귀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제명해버렸다. 또한 남동생이 신양촌 안내원으로 있었는데 마귀의 동생이라 하여 안내원에서 제명해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동생들은 "형님, 신양촌에서 나갑시다. 형님같이 충성하는 자를 마귀라고 조롱하니 여긴 있을 곳이 못 됩니다."라고 하면서 모두 나가자고 졸라댔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일관단심으로 '아니야, 성경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구절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몹시 사랑하시는 고로 징계하시는 것이야.' 하며 동생들을 달랬다.

신양촌 내에서 마귀로 찍혀 모두들 외면하는 고로 공장에도 나갈 수 없고 공장의 물건도 팔 수 없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 집에는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막막한 환경까지 이르렀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친척이 되는 김포 큰아버지 댁에 가서 쌀을 좀 빌려 달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큰 아버지는 "야! 이 새끼야, 집 팔아서 신양촌에 들어간 미친 자식이 무슨 낫짝으로 여기 와서 쌀 타령이나? 너같이 정신 못 차린 새끼는 굶어 죽어도 마땅해."라고 욕설만 퍼부을 뿐 쌀 한 톨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영등포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 사정을 들어주시겠지!' 생각하고 갔더니, 작은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욕을 할 뿐만 아니라 발길로 차고 귀싸대기를 갈기는 고로 할 수 없이 도망치다시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야 했다.

그렇게 박대를 받고 영등포에서 소사 신양촌까지 차비가 없어 밤늦도록 걸어와야만 했다. 걸으면서 "하나님! 저는 굶어도 좋으니 신앙이 없는 가족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며 울면서 간곡히 기도했다. 집에 와서는 2층 골방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죽게 될 인생들이 거룩한 땅까지 끌고 오는 것을 허락하셔서 소사신양촌에 입주를 시켜 주셨으니 이 열두 식구를 여기서 나가게 할 수는 없사옵나. 부디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하였다. 가족들은 쌀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이었으나 "돈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여유롭고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격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

하나님의 이교심으로 장사를 시작하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문득, 서울로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조희상님은 연단받을 때 매를 많이 맞았지만 감사함으로 이겨냈다

나갔다. 영모님 댁과 범박우체국을 지나 북송아 밭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영등포 당산동지관에 있는 유집사라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들에게서 3만원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누구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을까, 갚돈을 놓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아무래도 '조 전도사님께 맡기면 가장 믿을 만하겠다.' 싶어서 나를 찾아 왔다는 것이다. 소사 신양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막연

히 만나려고 오는 중인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너무 반갑고 기뻐서 유집사님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이자를 드리고 필요하실 때 돌려드리겠습니다."하고 그 3만원을 받아가지고 쌀 한 가마를 사서 집에 들여놓고 나머지 돈으로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덕소

신양촌에서 생산되는 콜라 공장에 병을 납품하는 운양제단의 정성화 장로가 병 납품 대금조로 콜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전부터 이 사람에게 콜라를 팔아보지 않았느냐고 여러 번 권장한 적이 있었던 고로 괜찮겠다 싶어 콜라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종로통에 가게를 하나 낸 다음 집 심는 화물용 일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신양촌에 살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하고, 신양촌 콜라·사이다 장사를 천신만고 끝에 시작했다.

당시 이 사람의 신앙관으로는 무슨 물건이든지 신양촌 물건으로 장사를 하면 맛이 좋고 품질도 좋았다. 그런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 칠성 콜라·사이다와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리한 입장이지만, 하늘의 사람이 거느리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면 아무 걱정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시작한 처음에는 별의 별 일을 다 겪었다. 어떤 주류 도매점에 가서 "신양촌 콜라·사이다를 좀 팔아보시지요. 맛이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하며 관촉을 하였다. 주인이 콜라를 보더니 대뜸 "이 새끼야, 이렇게 시커먼 것이 동등 뜨는 것을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

서 상품이라고 팔러 다니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따귀를 갈기고 욕을 해대며 내쫓았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화를 내지도 대항하지도 않으며 죄송하다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돌아서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마음먹었다. 종로통에 가게를 하나 낸 다음 집 심는 화물용 일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신양촌에 살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하고, 신양촌 콜라·사이다 장사를 천신만고 끝에 끝을 시작했다.

그런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 칠성 콜라·사이다와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리한 입장이지만, 하늘의 사람이 거느리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면 아무 걱정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시작한 처음에는 별의 별 일을 다 겪었다. 어떤 주류 도매점에 가서 "신양촌 콜라·사이다를 좀 팔아보시지요. 맛이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하며 관촉을 하였다. 주인이 콜라를 보더니 대뜸 "이 새끼야, 이렇게 시커먼 것이 동등 뜨는 것을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서 상품이라고 팔러 다니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따귀를 갈기고 욕을 해대며 내쫓았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화를 내지도 대항하지도 않으며 죄송하다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돌아서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마음먹었다. 종로통에 가게를 하나 낸 다음 집 심는 화물용 일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신양촌에 살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하고, 신양촌 콜라·사이다 장사를 천신만고 끝에 끝을 시작했다. 그때가 되어서 "너는 내 종업원이야 내가 가져면 가는 거야!" 하면서 억지로 데리고 길을 나섰다. 청년은 먼발치에서 뒤 따라 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집은 두 번 다시 가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나'라는 것이 '괴수죄인'이요, 개 같은 마귀새끼'인 것을 아는 고로 '너는 더 천대를 받아야 마땅해, 가서 더 수모를 받아라, 이 마귀 새끼야.'하고 또 여기에서 극복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마음의 싸움을 하면서 매 맞는 집으로 다시 갔던 것이다.*